

고유가 피해지원금, 광주·전남 주유소 절반 못 쓴다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적용...10곳 중 5곳 '사용 불가' 지역별 체감 '천차만별'...“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충”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정작 광주·전남지역 사용자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유소 사용이 제한된 구조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격차가 겹치며 '반아도 쓰기 어려운 지원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전체 주유소 263곳 중 가맹 주유소는 124곳에 그쳐 가맹률이 47.15%로 집계됐

다. 이는 전국 평균 가맹률 42.13%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지역 내 편차가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의 경우 전체 811곳 가운데 538곳이 가맹 주유소로 등록돼 가맹률 66.34%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지만, 시·군 단위로 내려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맹 주유소 비중이 크게 떨어지며 '10곳 중 4곳은 사용 불가'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주유소 현황

지역	주유소현황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주유소현황	비율
광주	263	124	47.15%
전남	811	538	66.34%



이 같은 지역별 격차는 동일한 지원 정책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효과를 낳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광주는 가맹점 자체가 낮아 '접근성' 문제가, 전남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이용 가능성'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균일하지 않다. 전북은 가맹률 87.2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경기도는 8.65%에 그치며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 함께 역시 11.68%로 낮은 편에 속해, 대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가맹 인프라 불균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정책 설계와 현장 인프라 간의 괴리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맹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용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주유소는 정유사 계약 구조와 결제 시스템 문제로 인해 일반 소상공인 업체보다 가맹 확대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설계 자체가 이러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자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했고, 이에 따라 주유소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주유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사용 가능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가맹 주유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까지 확대된다.

지급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원, 일반 국민은 15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이나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된 금액은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다만 사용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제한되며, 사용 지역 역시 주주소 관할로 묶인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금호타이어가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윤민석 상무(왼쪽 네번째)와 슈퍼레이스 마석호 대표(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후원 조인식을 진행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금호타이어, '토요타 가주 레이싱' 참가팀 후원

슈퍼레이스와 협업...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 입증

금호타이어가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인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에 나서며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현장에서 검증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8일 슈퍼레이스와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클래스 후원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인식에는 윤민석 금호타이어 상무와 마석호 슈퍼레이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6000 클래스는 대한민국 정상급 드라이버들이 참가하는 메인 클래스이자, 최고 시속 300km/h에 달하는 아시아 유일의 스톱카 레이싱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회이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준피티드 레이싱팀, 찬스레이싱 by NH투자증권팀에 레이싱 타이어를 지원하며, 대회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차량에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 '엑스타 S 700'과 빗길에서도 우수한 주행 안정성과 제동 성능을 제공하는 '엑스타 W 701'이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고성능 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을 실제 레이싱 환경에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터스포츠 기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대회 주관사인 슈퍼레이스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모

터스포츠 저변 확대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윤민석 상무는 "금호타이어는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에서 드라이버 및 팀 통합 챔피언을 차지하며 고성능 타이어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이를 통해 기술명가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타이어 브랜드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준피티드 레이싱팀이 지난 18일~19일 옹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더블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개막 더블라운드를 완벽히 제압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중진공 호남연수원, 교육기관 첫 'ISO10002' 고객만족경영 국제표준 인증...민원 처리·서비스 개선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이 고객만족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공공 교육연수기관 서비스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심사를 거쳐 국제표준 ISO 10002(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

증은 전국 교육연수 기관·시설 가운데 해당 분야 최초 사례다.

ISO 10002는 고객 불만 및 민원 처리, 요구사항 대응, 서비스 품질 개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고객 만족도 향상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서비스 운영 전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호남연수원은 고객 중심 서비스 환경 구축과 민원 처리 절차의 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개선 활동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표준 매뉴얼 제정 및 접수·처리 체계 고도화, 교육·시설·급식 등 현장 서비스 개선, 고객 의견 분석 및 지속 개선 활동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경훈 호남연수원장은 "이번 인증은 고객의 목소리를 경영 전반에 반영해 노력의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공공 교육연수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북구 AI기업 채용 지원 '일자리잡고+' 가동

청년 정규직 채용 연계...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광주지역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 맞춤형 인력 공급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겨냥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경제자유협회는 북구 AI 산업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 AI 일자리잡고+ 원스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산업 성장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채용 지원을 넘어 맞춤형 일자리 매칭, 우수기업 발굴, 장기근속 유도, 조직문화 개선까지

포함한 '4단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 소재 AI 관련 기업 중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250만원의 재료비를 지원받는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돼 최대 1000만원 규모다.

이외 신규 채용 인력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지원도 병행된다. 워라밸과 근로환경이 우수한 기업에는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해 인재 유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은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총 15개 기업을 선정한다.

양진석 광주경제자유협회 회장은 "광주 AI 산업이 기술 개발 중심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 적용과 고용 창출로 확산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뒷받침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건설링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